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13.(일) 12:00
(지면) 2026. 9. 14.(월) 조간

“초연결 시대 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행안부, 지자체 우수 정보통신서비스 발굴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대통령상에 대구광역시 선정
- 전국 33개 출품 사례 중 서면·국민평가 거쳐 최종 수상작 현장심사 결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도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9월 10일(목)부터 9월 11일(금)까지 개최하여, 지역사회의 현장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을 선보였다.

매년 각 광역 시·도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이번 발표대회는 서울에서 열렸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국민평가를 거쳐 3차 현장심사를 통해 순위를 정한다. 올해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33개 사례가 출품되었으며, 총 8개 우수사례가 최종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서비스 주요 우수사례

서울특별시 is 인공지능(AI)과 드론을 활용하여 국민의 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구조를 지원하는 피지컬 AI 기반 자율구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신호 없는 교차로, 좁은 골목, 급경사 산길 등 시야 사각지대에서 접근 차량을 감지해 사전 경고하고 감속을 유도하는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스마트 반사경을 도입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였다.

경기도는 5G정부망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이나 이동형 근무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이동민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기반 시설(인프라)을 조성하였다.

경기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반려동물을 간편하게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경북 경산시는 자가통신망과 영상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지능형 CCTV 운영으로 체납관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체납차량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경북 김천시는 통신망 구조 개편 등 스마트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산불 실시간 감시, 불법 이륜차 단속 등을 위한 AI 촬영서비스를 조성했다.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가망과 도 행정망을 이원화한 광대역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극한 재난에도 중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방 및 시·군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포획한 해충의 종류를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디지털트랩’을 농업 현장에 설치하여 돌발 해충과 외래 해충까지 무인으로 감시하고 적시에 방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송상호 위원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AI를 창의적으로 융합한 사례가 많았고, 대부분의 사례가 지역 사회에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져오는 우수한 서비스여서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았다”라고 호평했다.

우수사례 심사결과 대통령상은 대구광역시, 국무총리상은 경기도, 장관상은 서울특별시, 경기 용인시, 경북 경산시, 경북 김천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수여되었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모든 사람과 사물이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에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도 혁신적이지만, 다른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하면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진다”라며,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보통신서비스 사례를 계속 발굴하여 국민의 일상 속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인공지능정부실 공공서비스혁신과	책임자	과 장	손성주 (044-205-2721)
		담당자	사무관	이재연 (044-205-2913)





행정안전부는 11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구광역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반사경을 도입해 시야 사각지대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경기도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5G정부망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5G 정부망 거점형' 이동 민원 플랫폼을 구축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11일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일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작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33개의 사례가 출품되어 우수사례를 겨뤘다.

1. 추진 목적

- AI 등 최신기술을 행정에 반영한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자체 간 우수 정책의 상호 확산 도모
 - 급변하는 AI 행정환경 속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한 업무추진으로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 고도화에 기여
- ※ '96년부터 매년 시·도별 순회 개최

2. 대회 개요

- (일시/장소) '26. 9. 10.(목) ~ 9. 11.(금) /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
- (주최/주관) 행정안전부 / 서울특별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 (참석대상) 지자체 정보통신 담당자 등 300여명

3. 행사 내용

①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및 시상

- (시상규모) 8점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1, 행정안전부장관상6)

구 분	훈 격	인원	비고
최우수상	대통령상	1명	
우수상	국무총리상	1명	
장려상	행정안전부장관상	6명	

② 서울시 정보통신센터(CCTV안전센터, 사이버안전센터) 견학

③ ICT 정보통신기술 전시관 운영 및 AI 로봇개 시연

- (ICT 부스) 정보통신기술 전시관 및 AI 체험관 등(총 20업체 32부스 구성)
- (AI 로봇개) 참가를 환영하는 애교 및 참가자에게 보행 시연

붙임3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본선진출작 (8점)

연번	지자체명	우수사례명	주요내용	비고
1	서울특별시	피지컬 AI 기반 한강 자살자 선제 감지·자율 구조 AX 시스템	· 한강 교량 등에서 발생하는 투신·수난사고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실시간 예측·감지하고, 자율드론과 구명장비를 즉시 출동시켜 인명을 구조하는 안전 플랫폼 구축	
2	대구광역시	스마트시티 실증에서 해외수출까지, IoT 스마트 반사경 사업화 성공사례	· 차량 접근 시 반사경에 탑재된 LED가 자동 점등하거나 시각적 경고를 제공하여 운전자·보행자의 안전 확보 · 기술개발·실증을 거쳐 스마트 반사경을 제품화·상용화하고 매출 창출 및 해외 수출 협의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3	경기도	경기 5G 이동민원 플랫폼 구축으로 현장 공동활용 기반 조성	· 경기도 지자체에서 광역 단위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5G 정부망 거점형' 플랫폼 구축 · 이를 통해, 지자체별 중복 인프라 구축 방식에서 탈피하여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 동시 달성	
4	경기도 용인시	동물등록 절차 디지털화 및 반려가구를 위한 AI플랫폼 구축	· 종이 신청서 중심의 동물등록 절차를 QR코드 기반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종이없는 행정서비스 구현 · 로봇업무자동화(RPA)* 기술을 도입하여 검수과정의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행정업무를 자동화 * Robotic Process Automation	
5	경상북도 경산시	자가통신망 활용 저비용 체납차량 번호인식 서비스 구축	· 자체 구축한 자가통신망을 활용, 공용주차장 출입구에 영상분석 CCTV를 설치하여, 별도의 통신비 부담 없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을 실시간 단속하는 시스템 구축	
6	경상북도 김천시	김천시 스마트시티 Go! Go!	· 단일 물리통신망을 8개 채널로 확장·분리하여 예비망을 확보하고, 스마트시티 유·무선 통신 기반을 구현 · 자가망 인프라 공모사업 서비스 연계를 통해 도심공원 공공 와이파이 무료 제공(9개소), 산불 감시 및 공원 내 불법 이륜차 단속 서비스 등 구현	
7	경상남도	도민 일상을 지키는 광대역 국가정보통신망, 극한 재난 무중단 행정서비스 구축	· 극한 재난에도 무중단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대역 정보통신망 이원화 기반 구축 · 화재·지진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방 및 시·군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확보	
8	제주특별자치도	돌발해충도 놓치지 않는 AI 병해충 감시 체계 구축	· AI 학습기반 병해충 자동진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돌발·외래 해충을 무인감시 · 첨단 트랩과 카메라로 해충을 자동 포획·분석하여 농가와 방제당국에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 기후변화로 급증한 농업피해 최소화 및 선제적 적기 방제 체계 구축	